

2022 세종특별시,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9.1) 보도자료 스크랩

2022.09.05.(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충청일보	세종시, 동북아 청소년 그림·포스터 전시회 개최	
2	신문	충남일보	세종시, 동북아 청소년미술 전시회	
3	신문	충청매일	동북아 청소년 그림 등 전시	
4	신문	충청뉴스	세종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5	신문	충북일보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6	신문	동양일보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7	신문	충청신문	동북아 청소년 미술 작품, 세종에 온다	
8	신문	중부매일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9	신문	서울신문	동북아 5개국 청소년 미술작품 세종으로	
10	인터넷	연합뉴스	동북아 우수 청소년 미술작품 세종 온다…25일까지 70점 선배	
11	인터넷	뉴스세상	세종시, 동북아 청소년 그림 전시회	
12	인터넷	아시아투데이	세종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13	인터넷	특급뉴스	세종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14	인터넷	뉴스핍	세종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미술작품 전시회 25일까지 개최	
15	인터넷	신아일보	세종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 포스터 수상작 전시회	
16	인터넷	중도일보	동북아 청소년 그림·포스터 세종 전시	
17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18	인터넷	세계타임즈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19	인터넷	충청타임즈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서 본다	
20	인터넷	내외일보	세종에서 동북아 청소년 미술, 펼쳐진다.	

21	인터넷	뉴스포인트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22	인터넷	케이에스피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23	인터넷	백제뉴스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24	인터넷	대전경제뉴스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25	인터넷	SR타임스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26	인터넷	IPN뉴스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27	인터넷	불교공뉴스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28	인터넷	금강일보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29	통신사	세계뉴스통신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30	통신사	중부뉴스통신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세종시, 동북아 청소년 그림·포스터 전시회 개최

✎ 최성열 기자 ㉠ 승인 2022.09.01 12:39

25일까지 작품 100여 점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 전시



▲ 제마의 기품 / 중국 후난성 / 차오즈 (2020 최우수)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시를 찾는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 점(북한 제외)을 전시한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성열기자



충청일보

▲ 안상갑씨 그린 지역축제 / 몽골 옴스 아이막 / 바트수흐 쳉드야요쉬 (2019 우수)



▲ 안동 탈춤 축제에서 / 한국 경상북도 / 윤지우 (2021 입선)



최성열 기자 csr48a@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 동북아 청소년미술 전시회

✎ 김공배 기자 ㉠ 승인 2022.09.01 12:17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동북아 청소년미술전 출품작, 제마의 기품 / 중국 후난성 / 차오즈 (2020 최우수작)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시에 온다.

세종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마련했다.

작품 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 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 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 중이다.



김공배 기자 kkb1100@hanmail.net

[HOME](#) > [지역](#) > [대전·세종·충남](#)

동북아 청소년 그림 등 전시

김오준 기자 | 승인 2022.09.01 17:00

| 세종시,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시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8일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25일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시아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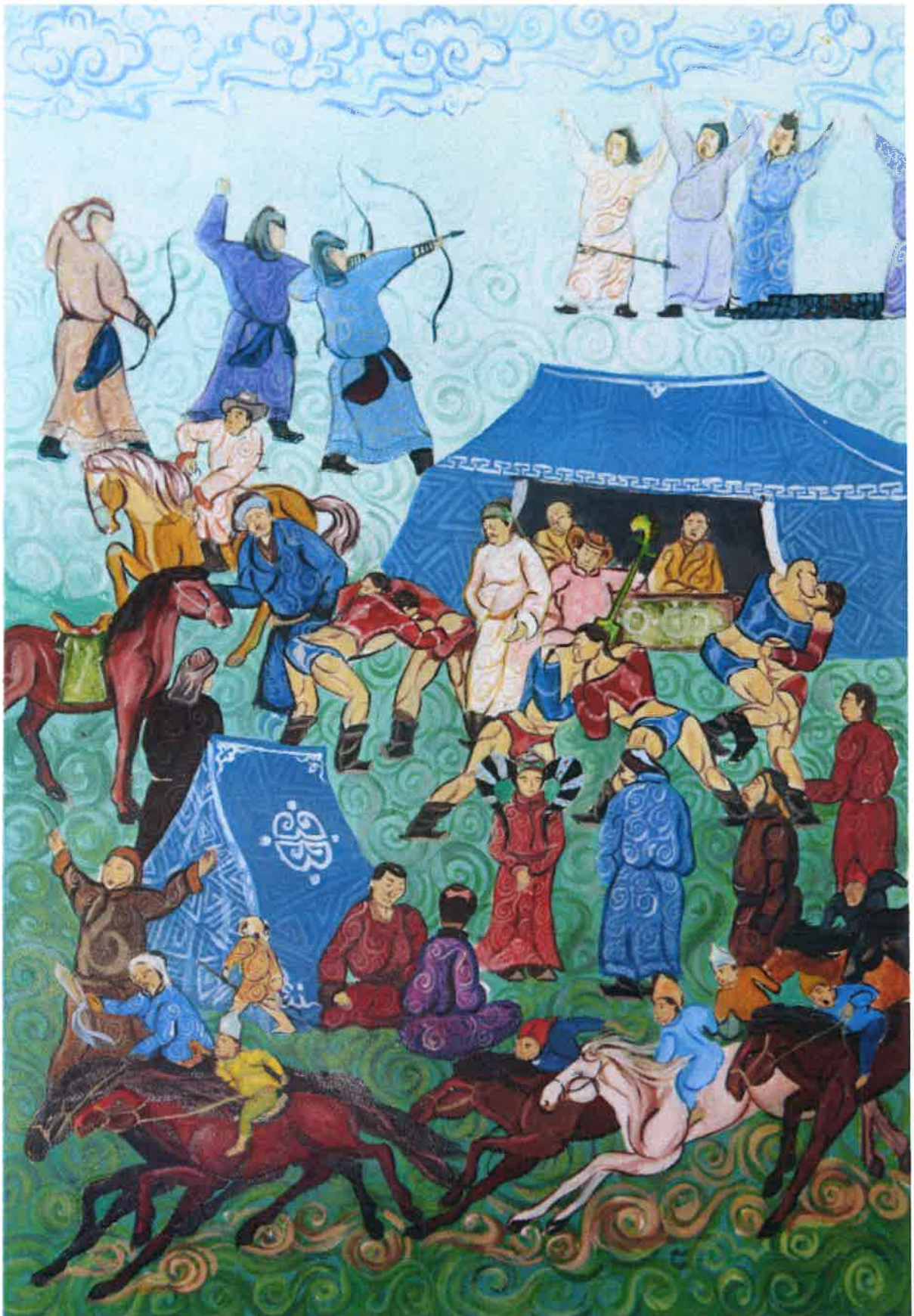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세종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9.01 10:01



인상깊었던 지역축제 / 몽골 옍스 아이막 / 바트수흐 첵드야요쉬 (2019 우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시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형순 기자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25일까지 작품 100여점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 전시

김정호 기자 kimjeongho9654@naver.com

기사입력 2022.09.01 09:25:22 최종수정 2022.09.01 09:25:22



[충북일보]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소재로 한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시에 선을 보인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시아 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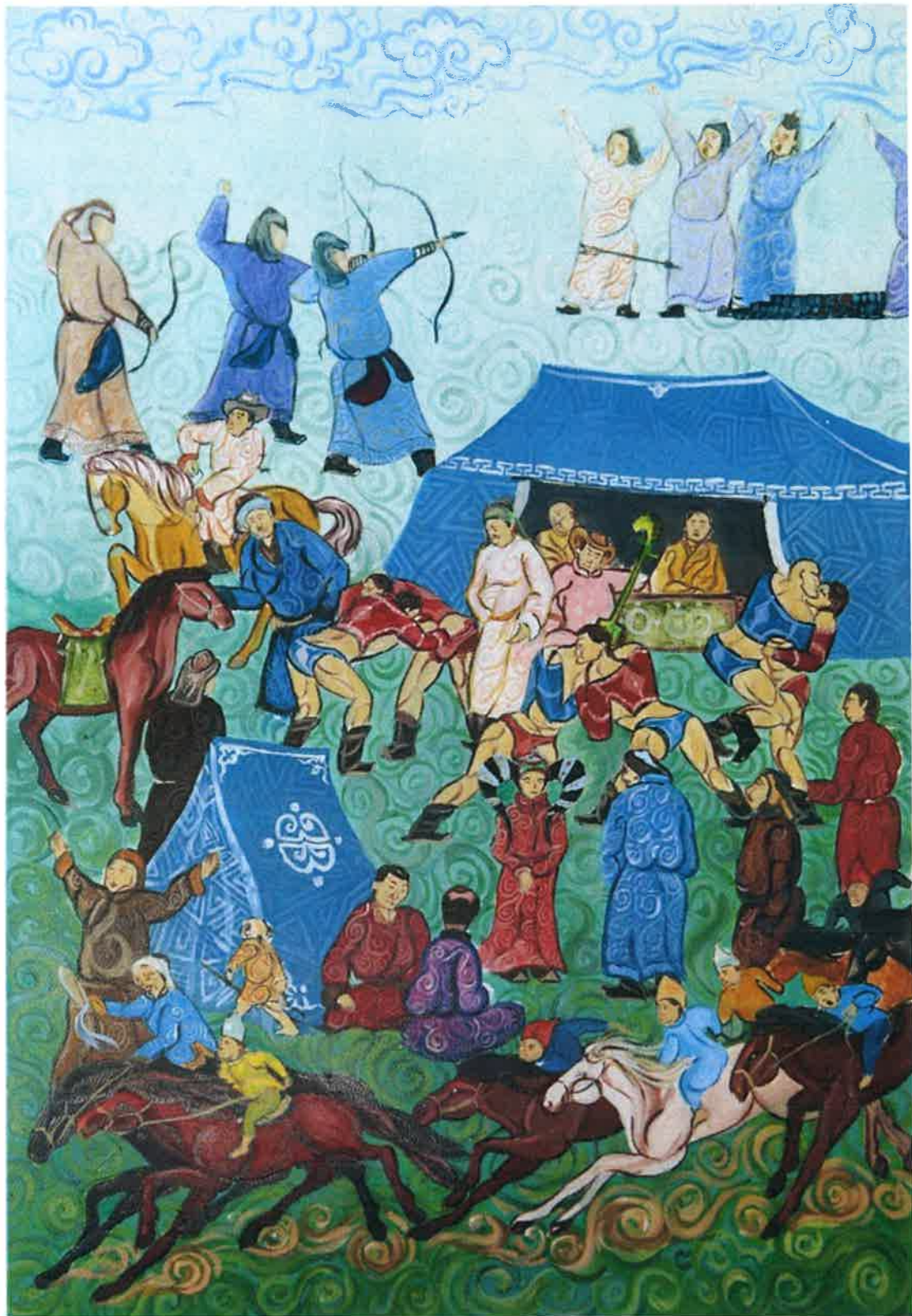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 신서희 ㉠ 승인 2022.09.01 11:02

25일까지 작품 70여점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 전시



안동 탈춤축제에서 한국 경상북도 윤지우 2021 입선



인상 깊었던 지역 축제 몽골 음스 아이막 바트수흐 쟁드야쉬 2019 우수



제마의 기품 중국 후난성 차오즈 2020 최우수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시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서희 zzvv2504@dynews.co.kr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 청소년 미술 작품, 세종에 온다

✎ 정완영 기자 ㉠ 승인 2022.09.01 18:25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25일까지 작품 70여점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서



▲ 세종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8일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25일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2020년 최우수상을 받은 중국 후난성 차오즈의 '제마의 기쁨'.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시에서 전시된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8일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25일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 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완영 기자 waneyoung@dailycc.net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2.09.01 09:41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25일까지 작품 100여점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 전시



2020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중국 후난성 '제마의 기쁨'./세종시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시에서 선보인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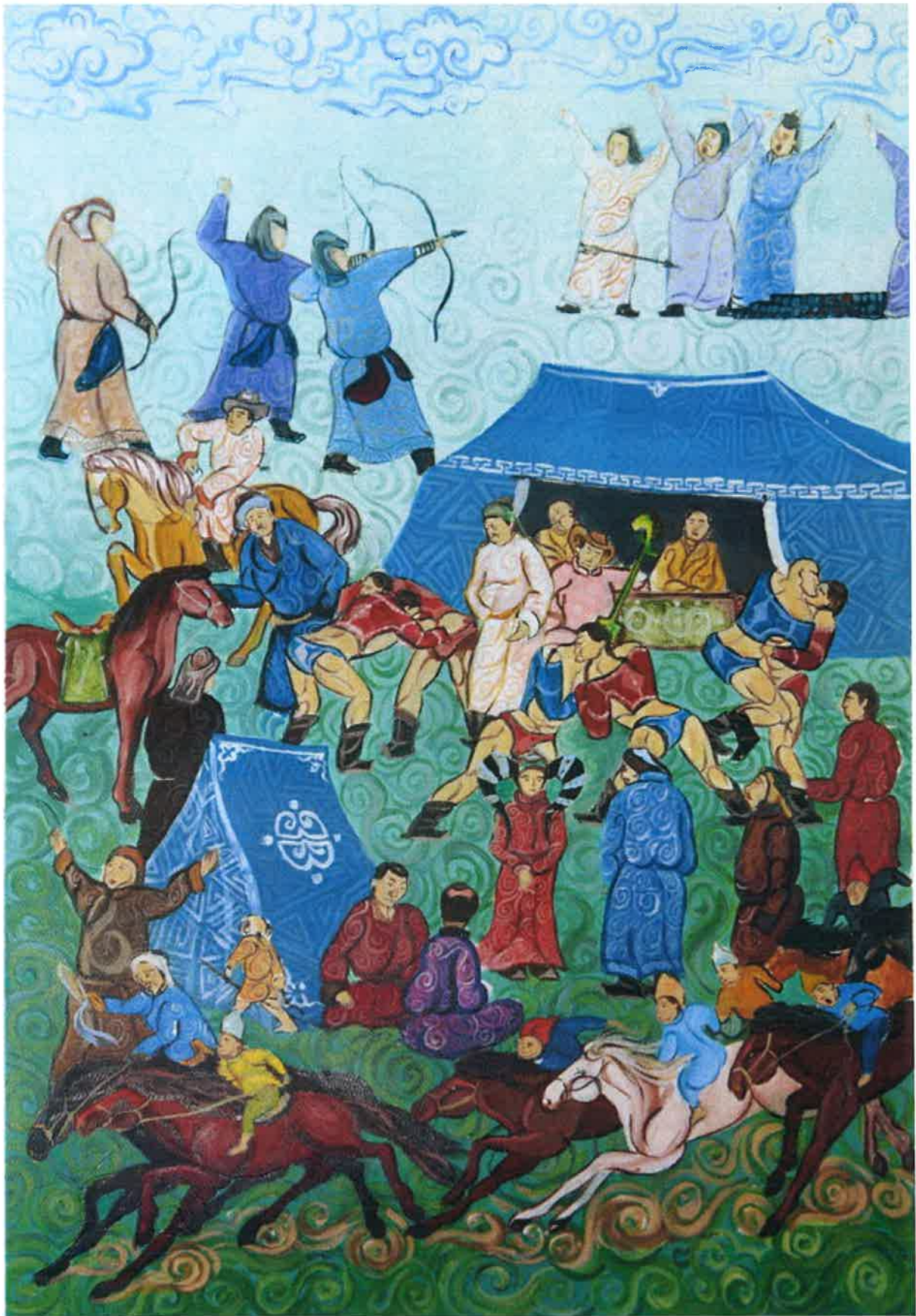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이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우수상을 수상한 몽골 옴스 아이막 바트수흐 행드야요쉬의 '인상 깊었던 지역 축제'. /세종시 제공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인문/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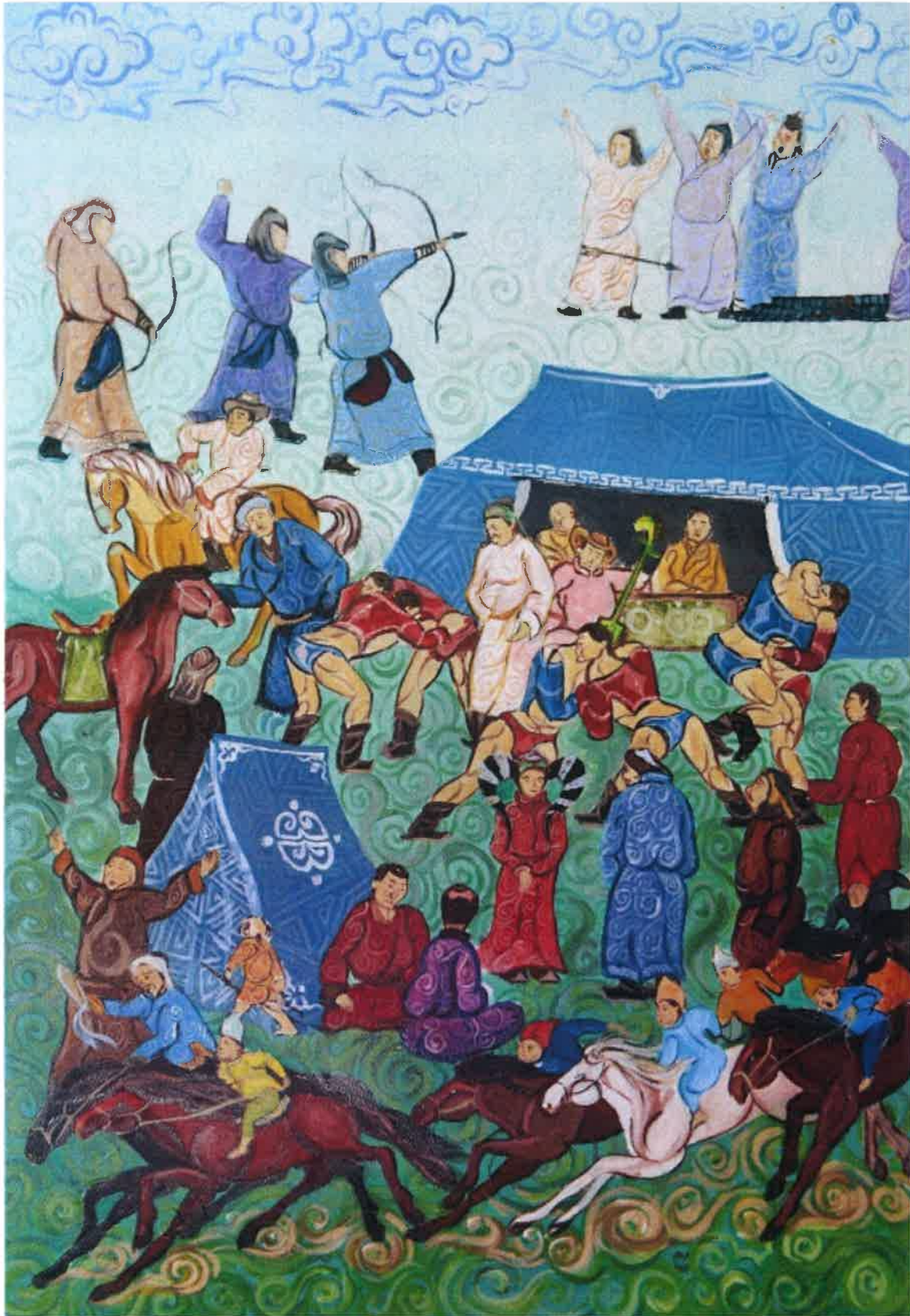


나인문 기자 nanews@daum.net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 5개국 청소년 미술작품 세종으로

입력 : 2022-09-01 11:18 | 수정 : 2022-09-01 11:18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몽골·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 청소년들이 동북아 협력의 징검다리 역할을 위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담아낸 작품 전시회가 세종시에 마련됐다.

세종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25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과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공모전 수상작 70여 점(북한 제외)이 소개된다.

작품들은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꿈과 바람 등이 화폭에 담겨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동북아 국가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 교류로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로 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 우수 청소년 미술작품 세종 온다...25일까지 70점 선봬

송고시간 | 2022-09-01 09:31



2020년 공모전 최우수작 중국 '제마의 기품'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손끝으로 담아낸 우수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시에서 선보인다.

세종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함께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전시관과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차례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점이 선보인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자국의 전통문화와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이 담겼다.

NEAR은 동북아시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 연계망 형성과 발전을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현재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이며, 국내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 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2021년 입선작 대한민국 '안동 탈춤 축제에서'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EAR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 지자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우수 작품 순회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용일 시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전시회는 동북아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 교류를 통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w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1 09:31 송고

세종시, 동북아 청소년 그림 전시회

✎ 이지웅 기자 ② 승인 2022.09.01 15:57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 등



제마의 기품 / 중국 후난성 / 차오즈 (2020 최우수). 세종시

[뉴스세상 세종 이지웅 기자]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시아 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웅 기자 apple25885@nate.com



세종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기사승인 [2022-09-01 12:01]



몽골 옴스 아이막 바트수흐 첵드야요쉬 2019년 우수작품./

제공=세종시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시로 온다.

세종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 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시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lss810@asiatoday.co.kr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세종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 김광섭 기자 ④ 승인 2022.09.01 08:17

작품 70여점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 전시



제마의 기품 / 중국 후난성 / 차오즈 (2020 최우수)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시아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광섭 기자 stopksk@hanmail.net

세종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미술작품 전시회 25일까지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09:56 |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09:56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 70여점 전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린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1~8일엔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에서 개최하고 6~25일에는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 후난성 출신 차오즈가 그린 '제마의 기품'. [사진=세종시] 2022.09.01 goongeen@newspim.com

이번 행사는 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NEAR) 사무국과 함께 개최한다. NEAR은 동북아 5개국과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위해 지난 1996년 설립된 국제교류기구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돼있다.

NEAR은 지난 2013년부터 북한을 제외한 5개국 회원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림과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각국의 시도별로 순회전시회를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NEAR의 5개 회원국 청소년들의 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 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과 거리모습 및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동북아 5개국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 포스터 수상작 전시회

김순선 기자 승인 2022.09.01 14:16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 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다.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세종/김순선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순선 기자 기자

 인쇄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 都 日 報

joongdo.co.kr

동북아 청소년 그림·포스터 세종 전시

한국·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5개국 참가...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서

이승규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2-09-01 08:13



동북아 청소년 미술(안동 탈출 축제에서 경북 윤지우 2021 입선작)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5개국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포스터가 세종을 찾는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 연합(NEAR) 사무국과 9월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각각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 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은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거리 모습을 비롯해 그들의 꿈과 바람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 연합(NEAR·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다.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NEAR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이승규 기자



제마의 기품 중국 후난성 차오즈 2020 최우수작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 몽골 옴스 아이막 바트수흐 쉥드야요쉬 2019 우수작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2.09.01 10:08 수정 : 2022.09.01 10:08

-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 25일까지 작품 100여점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 전시



지난해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몽골 청소년 작품인 '어딘가에서'.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시에서 전시된다.

세종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8일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25일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시아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ME > 세계로컬핫뉴스 > 세종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이채봉 📧 / 기사작성 : 2022-09-01 08:00:27

-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
- 25일까지 작품 70여점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 전시 -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 제마의 기품 / 중국 후난성 / 차오즈 (2020 최우수)



▲ 인상깊었던 지역축제 / 몽골 옍스 아이막 / 바트수흐 칭드야요쉬 (2019 우수)



▲ 안동 탈춤 축제에서 / 한국 경상북도 / 윤지우 (2021 입선)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eye.com>]

동북아 청소년 미술작품 세종서 본다

홍순황 기자 승인 2022.09.01 16:48

몽골·러시아 등 5개국 공모전 수상작 25일까지 전시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까지 ... 협력 징검다리 역할 기대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온다.

세종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시아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자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

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세종에서 동북아 청소년 미술, 펼쳐진다.

☎ 김주환 기자 Ⓞ 승인 2022.09.01 10:03

-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
- 25일까지 작품 100여점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 전시 -



(왼쪽부터) 수상작 : 제마의 기품 / 중국 후난성 / 차오즈 (2020 최우수)

인상깊었던 지역축제 / 몽골 옴스 아이막 / 바트수흐 쳉드야요쉬 (2019 우수)안동 탈춤 축제에서 / 한국 경상북도 / 윤지우 (2021 입선) 동북아 그림포스터부분 몽골포스터 최우수작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펼쳐진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환 기자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기사입력시간 : 2022/09/01 [06:10:00]

김다영 기자 kspa@kspnews.com



▲ 제마의 기품 / 중국 후난성 / 차오즈 (2020 최우수)

[케이에스피뉴스=김다영 기자 kspa@kspnews.com]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시아 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이원구 기자 승인 2022.09.01 08:51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25일까지 작품 70여점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 전시



제마의 기품 중국 후난성 차오즈 2020 최우수 작품 ©세종시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구 기자

홈 > 뉴스 > 사회·문화 > 문화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승인 2022년 09월 01일 06:50:39

최경윤 기자 ✉ dje4552@hanmail.net



▲ 제마의 기품 / 중국 후난성 / 차오즈 (2020 최우수).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 안동 탈춤 축제에서 / 한국 경상북도 / 윤지우 (2021 입선).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전경제=최경윤]

대전경제뉴스(<http://www.dj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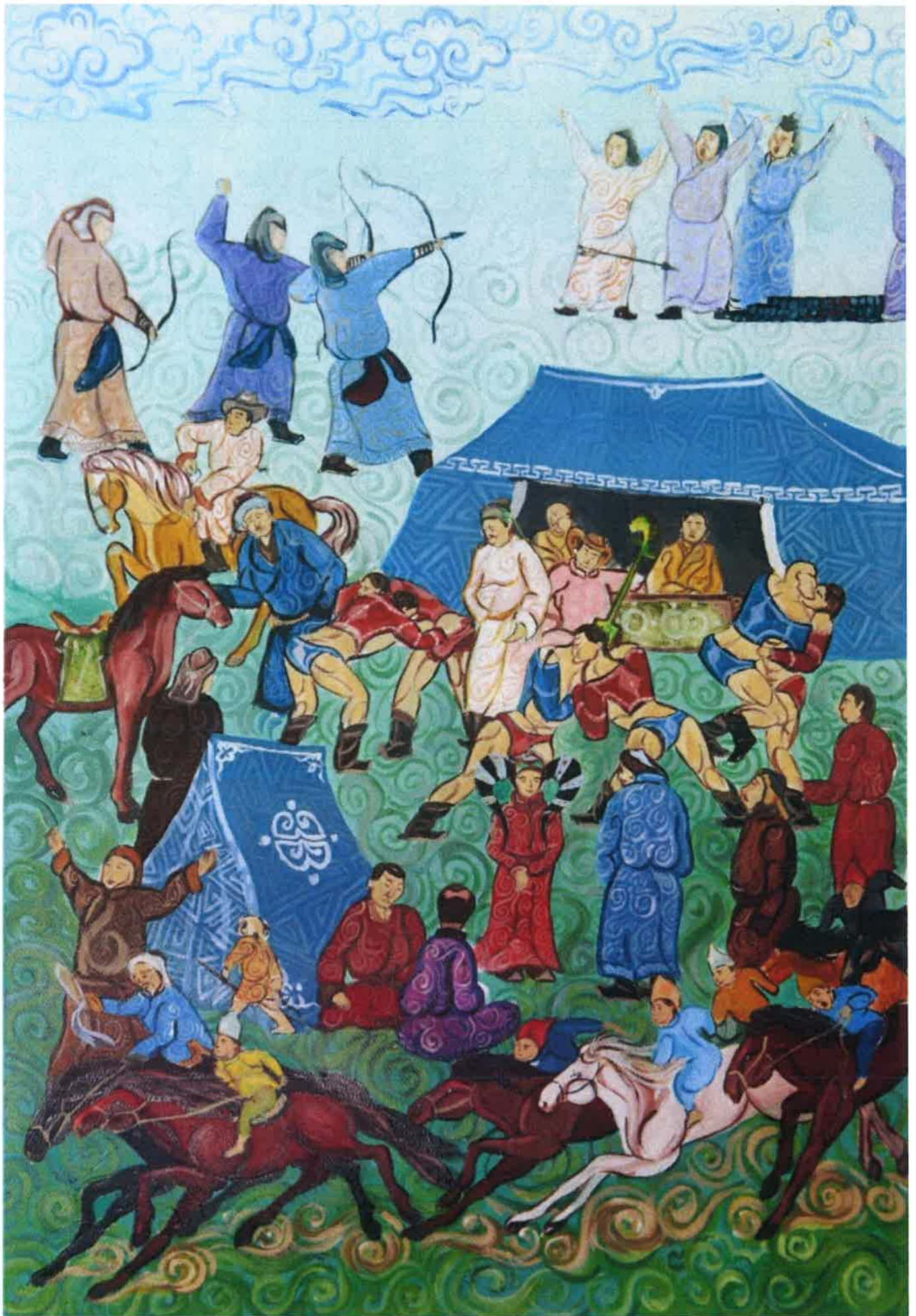


HOME 지자체의 SR 충청

[지자체의 SR]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서종권 기자

승인 2022.09.01 10:25



-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 25일까지 작품 100여점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 전시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중권 기자 sjg0133@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2022.09.01 06:45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시아 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namwoo97@hanmail.net

UPDATED. 2022-09-05 10:39 (월)

[로그인 \(https://www.bzeronews.com/member/login.html\)](https://www.bzeronews.com/member/login.html)

[회원가입 \(https://www.bzeronews.com/member/index.html\)](https://www.bzeronews.com/member/index.html)

[보도자료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467\)](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467)

[모바일웹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467\)](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467)



불교공뉴스



<http://www.bzeronews.com>

≡ 전체

[종합뉴스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view_](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view_)

[HOME \(/\)](#) > [지역뉴스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2) > [세종시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46\)](/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46)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김현우 기자

승인 2022.09.01 14:19

댓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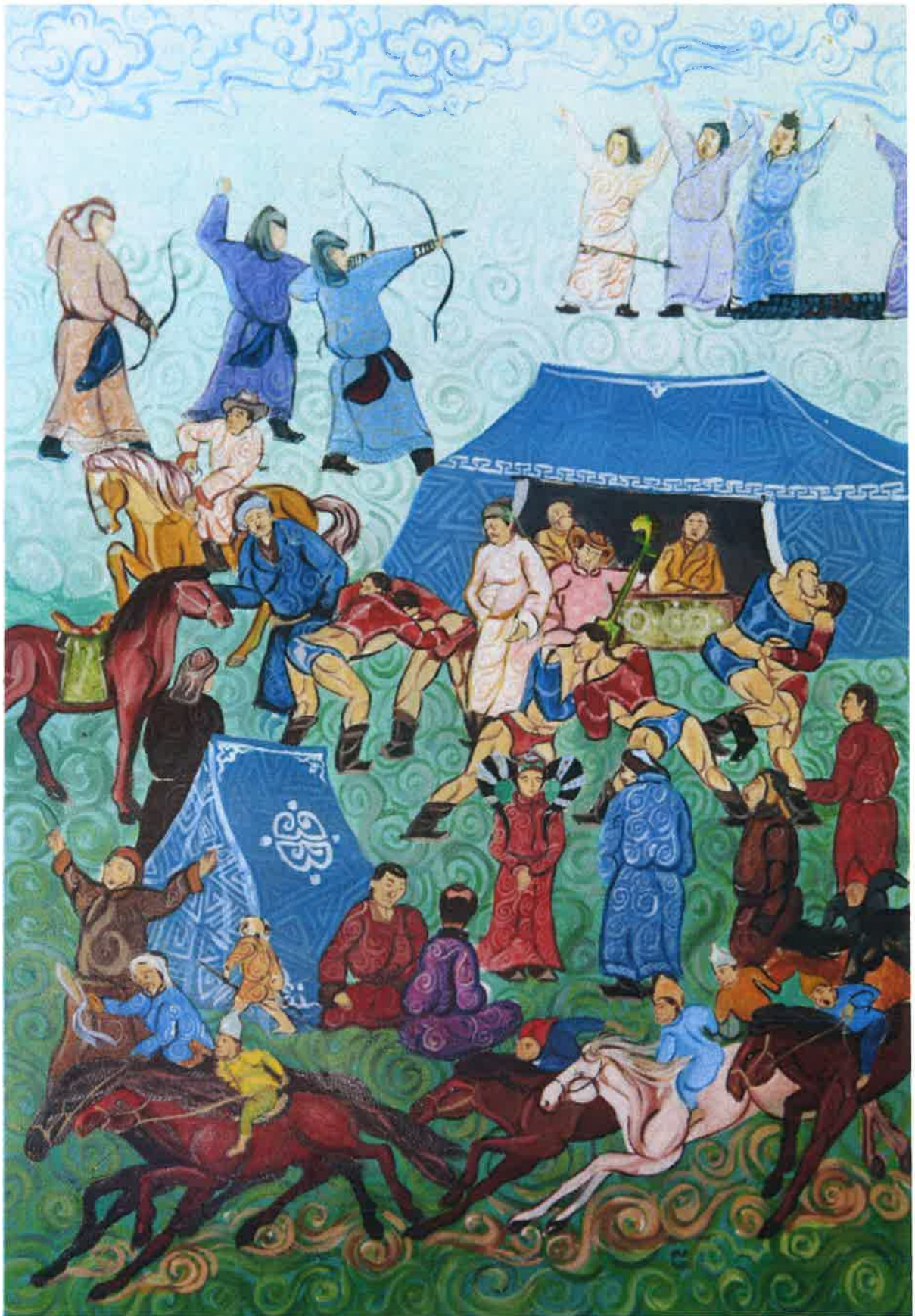


<https://smartstore.naver.com/honamencyclopedia>



<https://www.youtube.com/channel/UCXgCXa8xGwLi-JkmVLaxfqA>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관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우 기자 (<mailto:tops0321@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

불교공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공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불교공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 전병찬 기자 ㉠ 승인 2022.09.01 14:40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오는 25일까지 작품 100여 점 송담만리 전시관·세종시립도서관 전시



▲ 사진은 지난 2020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 포스터 공모전 최우수작에 선정된 중국 차오즈 作 \\\'제마의 기품\\\'의 작품. 세종시 제공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시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시아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 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전병찬 기자 bc1201@ggilbo.com



전병찬 기자 bc1201@ggilbo.com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디지털편성부 승인 2022.09.01 09:42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제마의 기품 / 중국 후난성 / 차오즈 (2020 최우수)

[세계뉴스통신 디지털편성부]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시아 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북한 제외)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은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
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
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
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디지털편성부 segyenews1@naver.com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승인 2022.09.01 06:45



▲ 동북아 청소년 미술, 세종에 온다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5개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자연을 그려낸 그림과 포스터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온다.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과 1일부터 8일까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전시관, 6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작품주제는 '동북아시아 지역 문화소개 및 자연보호'로 역대 공모전 수상작 7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작품에는 동북아 청소년들이 바라보고 생각한 각국의 전통문화부터 자연경관, 거리 모습 등은 물론, 그들의 꿈과 바람 등도 화폭에 담겨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연계망을 형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9월 설립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기구다.

회원 단체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지자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월 가입한 세종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시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2013년부터 5개국 회원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도별로 순회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동북아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5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성과 꿈이 표현된 작품을 교류해 미래 동북아 협력의 조그만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청=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